2012 <활기>의 첫 번째 워크숍

청소년 운동의 흐름을 읽고, 지형을 살펴, 현재를 묻는

<물음표> 간담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

□ **언제** : 2012년 3월 29일 목요일 오후 6:30- 오후 10:00

■ **어디서** : 민주노총 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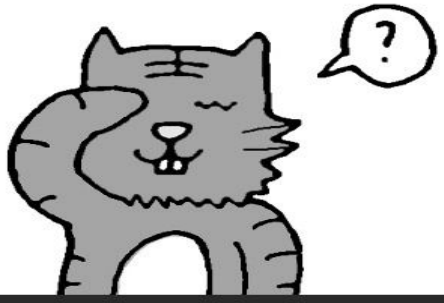
□ **여는 단체** :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 <활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트워크는 죽어서 물음표를 남긴다?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읽고, 지형을 살펴, 현재를 묻는 〈물음표 간담회〉

일시: 2012년 **3월 29일** (목) **늦은 6시 30분** /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 (서대문역 경향신문사옥)
준비: 청소년 활동기반 마련 프로젝트 〈활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가 올해 2012년, 5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해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호랑이가 죽어 가죽을 남기듯, 네트워크는 죽으며 물음표를 남겨보려 합니다. 점점 깊고, 넓어져 가고 있는 청소년 활동의 영역 속에서 서로 궁금했던 점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투덜대며 또 힘을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번창할 청소년 활동을 꿈꾸며 즐겁게 죽어가는(?) 네트워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들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야기 나누고픈 여러분을 모십니다!



1부. 네트워크의 다잉메시지
2부.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교육운동과 인권운동 사이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수수
"청소년, 사회권을 주장하다" 정당 청소년위원회: 공기
"여성주의와 반차별 운동을 중심으로" 10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쥬리
"학력/학벌 차별을 넘어" 고졸이하네트워크 고등어: 호야
"청소년의 활동기반 마련을 고민한다"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 활기: 둠코

cafe.daum.net / Life2010

◆ 1부 네트워크의 다잉 메시지 ◆

<유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청소년활동가들에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6. 03. 19 ~ 2012.03.2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탄생과 성장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유언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6년 3월 19일에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워크샵의 성과로 청소년인권운동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연대체였어요.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발전하는학생회 '가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다함께,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등의 단체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꾸려나갔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운동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단체도, 활동가도 부족했지요. 그러다 보니 한 걸음 떼었다 다시 돌아오고,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한 해 살이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반성에서 제가 탄생했고,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진영'을 열게 되었어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파란만장 전국행진(2006), 청소년인권-인문학 캠프 인권서리(2007), 학생인권법제정운동(2006~2007), 스쿨어택, 각종 학생인권 관련 집회&캠페인, 청소년인권캠프,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청소년인권 놀이터 '빨강물고기' 등등이 그 당시 저와 제 친구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만들어졌지요. 태어나자마자 1년간 으쌰으쌰 힘차게, 참 바지런히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활동이 저의 알찬 양분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저항의 곁에 버팀목이 되려고 노력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 -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를 펴냈습니다.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가 무려 665페이지 정도였으니, 2006년 그 해, 활동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나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저는 무럭무럭 성장했고, 어느덧 2008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참 뜻 깊은 해였지요. 우선 저랑 자주 부대끼던 몇몇 친구들이 저를 떠나가기도 했고,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2008년은 2005-6년에 '두발자유', '내신등급제 폐지' 등을 외치며 청소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저항의 불씨를 지피면서 '촛불집회'를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미친교육, 미친소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요. 그 당시 '전국청소년학생연합(전청련)', '10대연합' 등의 이른 바 '촛불청소년단체'들이 잠깐 등장했고 입시경쟁과 교육 문제를 고민하며 "일제고사 say NO"를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5.17 청소년 집회를 계기로 청소년직접행동에 불을 붙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청소년직접행동(청직행)'이란 새로운 네트워크가 2008년에 형성됩니다. 청직행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월, 마침 서울시교육감 선거시기와 맞물려 "기호0번청소년 후보" 운동을 펼쳤지요. 이 때 참, 거리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었답니다. 청직행은 기호0번청소년 운동 이후에도 촛불집회 곳곳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고 외치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알록달록 기똥찬 피켓을 만들기도, 거리에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청소년활동가들의 내부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위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이 청소년직접행동으로 시끌시끌했던 시기였다면, 2009년과 2010년은 비교적 조용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학생인권이나 교육 의제가 아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청소년인권 의제들을 새로운 친구들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전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닿지 않아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죠! 드디어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이 시기가 바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연구와 담론 성장이 활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일까? '청소년 보호주의', 여성청소년의 목소리 좀 높여보자! '걸페미니즘-10대 여성주의', 청소년도 노동자야! '청소년노동인권-알리바바 운동' 등이 기운차게 판을 벌여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시간 동안의 회의, 공부모임, 세미나. 더 나아가 청소년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까지도! 여러 청소년 운동의 의제와 다양한 청소년활동가들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청소년인권선언'도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여러 운동진영에서 발표한 '2008인권선언'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참여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누리지 못할 권리는 없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2011년 이후,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자

2010년 말부터 2011년 들어 저는 조금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던 저와 제 친구들은 다시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청소년활동가 활동기반 마련모임 '활기'가 바로 그 모임이지요! 이 시기에 청소년운동 영역을 보다 넓히고, 활동 기반 다지기를 위해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 뚝딱뚝딱 이루어집니다. 눈부신 활동을 거듭했던 초창기에 비해서는 그리 눈에 띄지도 않고 조금은 느릿했지만, 청소년운동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또렷또렷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듯, 저 네트워크 또한 죽으며 무언가를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운동에 대한 의지로 꽉 찬 청소년활동 모임들과 청소년활동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 합니다. 짧게 남기려 했지만 6년의 세월을 종이 몇 장에 정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고, 이제 저의 마지막 물음표를 받아 안고 제대로 품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새로운 운동을 향해 걸어가는 밑거름으로, 오늘 이 시간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 2부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

❶ 교육운동과 인권운동 사이에서

수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네트워크의 질문]

1-1) 청소년인권이 학생인권과 같은 말이 될 수는 없지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 안에서의 인권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아수나로 역시 학생인권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수나로 활동가들 중 상당수가 탈학교 상태기도 하구요. 이러한 아수나로에게 전국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작년에는 특히 다른 사업보다 학생인권조례(특히 서울지부)에 많은 역량을 쏟기도 했는데요. 듣보잡 학생인권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중요한 정세가 되는 것은 의미 있으나 학생인권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내부 이견이나 고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1-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하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비청소년을 만나 설득하고,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야말로 '보통의' 사람들과 운동의 내용을 널리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발의의 조건상(투표권ㅠ) 그간의 '싸가지 없음'을 내려놓고 어른(혹은 꼰대)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다른 운동 방식의 경험이 아수나로 활동가들에게는 무엇을 남겼나요?

☞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지금까지도 잡음이 많고 깨끗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학생인권조례에 치여서 산, 정말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때문에 아수나로 서울지부 내부 운영이 안 되거나, 다른 사업들이 줄줄이 파토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에 휩쓸린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움직임은 계속 되고 있지요. 경남과 경기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 운동에 해당 아수나로 지부들이 열심히 결합했지요.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 행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각 지부들에서도 더 나은 형태의 학생인권조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수나로 안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다른 청소년 인권 문제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학생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생인건 사실이에요. 학생인권조례는 그 대다수 청소년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혹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단)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무언가이구요. 사회의 소수자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학생들의 인권이 법의 틀 안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생각해요. 학생인권조례가 하나의 큰 키워드로 뜨면서 청소년인권,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 관심사가 생기기도 했구요. 그래서 아수나로에서는 다른 청소년 의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문제도 같이 해야한다는, 뭐 좀 욕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나로 서울지부가 정말 미친듯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결합했던 건 주민발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던 것이 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발의 서명은 청소년이 할 수 없어요.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 관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홍보의 대상에서조차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서울지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청소년에게 알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조직하는 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서명 숫자가 뜨악하리만큼 부족한 상황이 왔었죠 bb 서울 시민 1퍼센트의 동의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청소년운동에 있어 큰 상처가 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청소년들에게 서명을 구걸하는 몇 달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아수나로 활동가들(과 다른 청소년활동가들)에게 상처와 상처와 상처를 남긴...

그 상처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해주셨듯 그간의 '싸가지 없음'을 내려놓고 어른(혹은 꼰대)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청소년인권에 어쩌면 전혀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을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설명하고, 길바닥에서 토론하고 논쟁해야만 그 서울 시민들의 주민발의 청구서명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 많은 활동가들이 서명의 숫자에 치여서 정작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거나 설득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연대 단위로 들어가 있던 다른 운동단체들에 대한 불신도 커졌어요. 청소년인권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같이 서명을 다니면서 겪게 되는 그들의 꼰대성에 입는 상처 등. 운동사회 내부에서도 청소년인권감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아수나로 활동가들에게 상처와 상처와 상처를 남겼죠. 물론 이걸 바탕으로 운동사회나이주의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반복 설명인 것 같지만, 학생인권조례 운동에 치중하면서 아수나로가 본연의 청소년인권 의제를 많이 놓치는 것이 아닌가는 단체 내부 비판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아수나로 차원에서 학생 인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 인권 영역을 개척하고 넓혀나가야 한다는 합의는 되어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아수나로는 청소년 전체의 정치적 권리와 나이주의에 대한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네트워크의 질문]

2) 아수나로는 전국 지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이나 고민은 없으신지요? 지역마다 운동의 자원(사람, 공간 등)도 다를 테고, 이슈도 다를 텐데 그 차이들을 어떻게 모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소통에서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부가 많다 보니 아수나로 전체 이름으로 하게 되는 운동이라던가,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전 지부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단체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지부의 의견은 누락되기도 합니다. 소통에 관련된 문제의식과 고민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부 간 권력 문제도 존재합니다. 회원이 더 많은 지부나 활동을 더 오래, 혹은 많이 한 지부가 더 발언권을 많이 가지고 전체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아수나로 전체 총회 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나누기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고, 여하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구성원이나 관심사가 다르기에 운동하는 의제가 다른 건 음, 당연한 것 같아요. 아수나로는 기본적으로 각 지부에서 알아서… 개별의 활동 방식이나 사업을 택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권 아카데미를 진행하거나 어떤 지부에서는 꾸준히 학교 안 조직화 사업이나 스쿨어택을 하죠. 그런데 전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구성원 다름과 운동의 자원의 차이가 미묘한 걸림돌이 되기는 해요.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할 역량이 없는 지부도 존재하고, 전체 사업을 하다 지부만의 사업을 엎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자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온라인회의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일 년에 두 번 씩 총회를 해요. 지부간 교류를 활성화 해서 격차나 감수성의 농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공동 공부모임을 꾸리기도 하구요. 활동역량이 아직 부족한 신생지부들을 위한 지부지원담당도 두고 있습니다. 요샌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해서 광주와 대구와 서울 등의 활동가들이 시시콜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있어서! 왕. 눈의 위력.

◆ 2부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

❷ 청소년, 사회권을 주장하다

공기 (정당 청소년위원회)

[네트워크의 질문]

1) 정당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인권 의제 뿐 아니라 마리 투쟁이나 재능농성장 결합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는 곧 '청소년인권' 활동가였던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느 판에서든 청소년 활동가를 많이 보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정체성이 궁금해요~ 정당 안에 있는 청소년(나이 기준)들이 모여 있기에 청소년 위원회인 것이지, 아니면 청소년이 겪는 차별의 상황을 알리고 청소년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인 위원회인 것인지요.

2) 청소년인권운동의 오랜 상징적 구호는 '두발 자유', '체벌금지'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인권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의 사회권 관련 의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주거/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예 입니다. 청소년에게 노동권/주거권/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주장은 청소년이 있어야 할 곳은 '부모의 집 또는 학교'라는 지금의 도식을 훌쩍 뛰어넘는 도발적인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인권운동에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줄까요? 이 상상력이 뒷받침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을 더욱 던져봐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청소년활동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이건 사실 그동안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기회나 조언 등을 얻기 꽤 어려웠고, 물음표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다 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사로잡혀있을 때 그래도 청소년운동판(?)이라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과 고민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꺼 같다.

'진보정당'안에서 청소년위원회?

각자가 생각하는 '진보정당'은 다 다를 수 있다. 최근에 창당한 '녹색당'부터 이전에 내가 활동을 했던 '사회당' 그리고 이번3월에 사회당과 합당한 '진보신당' 그 이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이 깨지고 '국민참여당'과 함께 가고있는 '통합진보당'까지 아니 어쩌면 '민주통합당'까지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할수도 있다.

한국사회안에 정당들은 너무나 많다. 그중에 흔히 구분하는선은 '보수정당'과'진보정당'들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정당 안에 '청소년위원회'는 아마 진보정당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들이다. 나는 '전 사회당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에서 활동했었다. 이름이 참 길어졌는데 이번 진보신당과 합당절차에서 공식적으로 해소를 했다. 그러고선 다시꾸린 모임은 '다시모임'이라는 모임이다. 말 그대로 통합 후 에 앞으로 뭘 할 것 인가 서로 얘기를 해본 후 만들어진게 '다시모임'이다. 이것이 현재 나의상황이고 우선 그전에 본론에 들어가 질문부터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진보정당 안에서 청소년위원회의 '정체성'을 떠올려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난다.

청소년위원회의 정체성?

참으로 어떻게 얘기해야하나 고민하게 되는 말이다 딱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라고 이야기 나눠본적도 없는것같다. 하지만 처음 정당 안에서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을때 나는 그 당시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범주안에있는 활동은 하지않고 있었다. 나는 그때 '두리반'이라는 곳을 거쳐 '명동마리'라는 투쟁현장에 있었고 거기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본 친구들과 '왜 그냥 모임 형태가 아닌 정당 안에서 만들려고 한걸까?' 라는 고민으로 초반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거같다.

첫 번째로 그냥 모임형태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한가지가 있다.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프렌차이즈 커피숍에만 가도 개인당 오천원 이상이 든다. 허나 우리는 '차비'도 빠듯한데 장소를 위해 커피마실돈까지하면 엄청난 경제적타격이였고 정당 안에서 청소년위원회를 만들면 정식 부문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기대했었다. 물론 사회당청소년준비모임을 하면서 대부분의 회의와 교육과 세미나는 당사무실에서 진행할수있었다.

두 번째로 각자하고 싶은 활동의 기반들이 그나마 갖춰져있는곳이었다. 눈을 씻고 둘러봐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 혹은 알고싶은 것을 쉽게 알아내기란 너무나 어렵다. 돈도 없고 장소도 겨우 구한 우리는 당에 지원요청을 할수있었다. 당 안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반성폭력교육이나 소년운동의역사등등 교육이 필요할 때 손 벌릴 수 있는 기반이 이곳에 있었다.

세 번째로 '진보정당'에서 연대하는곳들이 많았는데 가령 2011년 여가부앞농성장이나 명동마리, 재능교육, 한일병원, 희망광장, 시청오큐파이 등등 셀 수 없는 투쟁사업장등이있다. 이곳에 연대한다는건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딱히 ~~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쉽게 얘기하기도 어려운부분이다 하지만 나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사업장에 연대하게되는건 결국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의부조리함 그리고 그곳에서 싸우고있는 사람들에대한 생각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좀더 말하자면 내가 청소년활동가로써 연대한다기보다는 갔을 때 드는 생각이 이싸움이 이투쟁이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그들의 절망에 공감하며 그들만의 문제라고 제쳐두는게 아닌 것 연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게되는 것 그것이 다른 투쟁현장에 연대하러갔던 첫이유이자 첫시작이였던것같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제뿐만 아니라 이런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게되는건 어떻게 연결시킬수있을지 모르겠다. 단순히 연대하고자하는 순수한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캐치하지못하는 부분들이 있는걸까. 청소년의제와는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할수도있다 하지만 밑에서도 얘기하고싶

지만 어느것하나 중요하지않은 활동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 중요하기에 각자가 선택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질문속에 어느 투쟁현장에가나 청소년활동가들을 만날 수있다고 얘기하는것엔 정말로 좀 연대의 방법 활동의 방법이 다양해진게 아닌가 하는생각이든다. 그러나 투쟁사업장에서 함께싸우고 연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러온사람들이 아니다 혹은 애들이다 취급받는건 이 운동사회내부에서 또 다시 문제제기하며 싸워나가야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기본소득 청'소'년 운동?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 '기본소득'이라는 말에서 갸우뚱하시는분들도 있을꺼라 생각한다. 간단하게 기본소득이란 국민이라면 어떠한 재산심사나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매달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과 청소년활동의 연관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기본소득을 달라고 주장하는건 어느정도 자신도 '자기삶의주체'라는 선언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대한 요구라고도 본다. 이런 '사회권'이라는 분류안에 청소년활동으로써 기본소득운동뿐만아니라 '모두에게기본소득을'이라는 구호에 '모두'는 당연히 청소년도 해당이되며 청년과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대해서 사회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운동'의 차원으로써 기본소득운동이 존재하는게 아닐까? 더나아가서 기본소득이 입법화 제도화된다면 좀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갈수있지않을까 하는 것 그렇기에 기존보다 더 다양한 요구들과 목소리가 만들어지는거고 청소년 활동이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더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들을 가질 수 있는 방향중에 하나라는 생각도든다. 기본소득운동 뿐만아니라 '청소년'스스로가 이사회에 요구할 권리들에대해서 찾아보고 운동으로 만드는것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않을까?

끝으로

최근에 학벌없는사회의 짧은 강연을 들은적이있다. 그 강의내용은 한해에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수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 결국은 떠나가는 청소년들의 이유들은 다 달라도 지금의 '제도교육'에는 문제가있다는것과 그리고 그렇게 떠밀려지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은 어디에있는가 하면 다양한 노동시장안에서 고된노동을하고 있다 노동형태는 다양해지고 노동조건의 개선은 아직도 먼이야기같다. 여기서 나는 '청소년인권'이란 학교안에있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않으며 (기존의청소년운동이 그래왔다는건 딱히 아니지만 학교'안'이야기들이 주류이지않았나?) 앞으로는 좀더 사회권(기본소득같은), 노동권(노동하는청소년들을 위한), 청보법개정요구안이나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가는것도 청소년활동에 필요하다는 생각이들며, 청소년의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들이 많아질수있다면 좋겠다. 또한 노동하는 청소년들이나 탈가정을한 청소년 그밖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의 청소년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한다. 나아가서 다양한운동들이 결국엔 이사회를바꿔낼 수 있고 또한 변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전선에 나는 청소년운동이 보다 많은것들을 요구하고 바꿔낼수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운동사회?'라고 얘기하는 이판도 꾸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 2부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

❸ 여성주의와 반차별 운동을 중심으로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 운동 속 성(性)과 관련한 고찰 및 실천의 필요성
-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청소년 성소수자 의제화 및 청소년의 가족구성권을 중심으로

쥬리 (10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네트워크의 질문]

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10대 여성주의 운동을 쪼끔 해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10대 혹은 10대 여성들과 성/섹슈얼리티 담론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섹슈얼리티, 라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렵지요. 청소년 인권의 다양한 영역 중 활동 키워드로 '섹슈얼리티'를 잡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2) 청소년 성소수자는 청소년이라는 정체성과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운동 안에서 호모 포비아(동성애 혐오)와 싸우는 것, 성소수자 운동 안에서 나이주의와 싸우는 것. 둘 모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의 차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면서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한 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및 활동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꾸리면서 그 조직에 연대 및 일부 소속(소속에 대한 합의가 당시 애매하게 된 상태였음)되는 '청소년 성소수자 조례 대응팀'(이하 청성조)이 꾸려졌다. 그 전부터 몇몇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성소수자 운동 내부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의제가 '청소년 그룹 속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으로만 이해되어 그들의 '청소년' 정체성 혹은 계층에 대한 고찰은 그다지 심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을 시작해보고자 막연하게나마 계획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운동을 공동행동과 함께하면서, 이번 싸움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조직화를 시도, 실천했었던 것이 청성조의 초기 역할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 발언대회(원티드)'를 진행하고 공동행동과 함께 '학교 내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사례 모음집' 발간을 위해 차별 사례를 모으는 데 동참했던 이후부터는 공동행동이나 청성조 내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할 역할을 찾지 못했고, 이는 이때부터 팀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사무국 중심으로 공동행동이 운동하기 시작했던 것, 그리

고 처음 청성조를 만들었던 활동가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것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유였던 것 같다.

공동행동의 팀별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공동행동 소속으로써의 청성조의 성격과 역할은 약해졌고, 보다 장기적인 청소년의 성적 권리 및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을 기획, 실천하고자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청소년에게 성(性)이라는 것은,

한국의 대다수 학교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있다. 가정 교과와 성교육 시간에는 끊임없이 이성교제가 '건전할 것'을 강조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불건전함은 때로 '섹스하지 않음'으로, 때로는 '까진 애'들의 연애로 정의된다. 영화 등급 중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 중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정 교과와 성교육 시간에 제시하는 모범적인 스킨십 수위는 가벼운 포옹까지로, 역시 '성적 욕구를 느끼지/실천하지 않을 만큼'이 기준이 된다. 청소년은 성욕을 느껴서도 안 되는 존재로 이 사회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연애하는 청소년, 임신/출산한 청소년, 성소수자이거나 그렇게 오해되는 청소년,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욕구, 성과 관련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관계에서 성을 향유하는 대다수 청소년들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이들의 성적 관계와 실천을 부모와 교사들은 끊임없이 감시하고 심문하며, 폭력과 무리에서 배제시키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소년의 시간은 입시가 늘 제 1순위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입시를 위한 공부 외의 다른 것은 부차적이거나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된다. 십대 때 연애하면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말은 '일단 입시에 매진해야 할 청소년이 연애를 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갈 테고, 행여나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이후 결혼의 수순을 헝클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회는 청소년의 성을 대할 때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공포와 혐오, 그리고 금지된 것에 대한 '성인(특히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특히 여성)청소년을 타자화시킨'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교복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페티시의 상징이었고, 여고생이라는 타이틀을 단 야동은 어디에나 있으며, 십대 걸그룹들은 '오빠를 사랑해'라고 노래하지만 그 속에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은 없다. 섹시한 (또한 순결할 것만 같은)청소년은 금지된 열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성인의 시선 속에 갇혀 있다. 실제로 많은 성인들이 청소년과의 성적 관계를 원하고 실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공공적인 비공식이다. 신문 기사에서 우리는 청소년과 성인의 성적 관계를 굉장히 문제적인 것으로, 청소년을 피해자화하며 그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동시에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쉽게 발랑 까졌다거나 '걸레'라거나 문제아라거나 '막 사는 애' 취급을 받는다. 아빠와 삼촌들은 다른 이들의 딸들을 욕망하지만, 자신의 딸은 '다른 이'들의 욕망으로부터 지켜주려는 다짐을 한다.

청소년이 성소수자로 정체화 할 때, 살아갈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청소년은 확연히 주변의 구체적인 억압의 족쇄가 몸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계층이며, 가정과 친권의 행사, 현 한국의 학교 체제 및 사회 전반의 청소년 억압과 함께 청소년 개인들의 삶을 제한하는 장치들이 가동되고 있다. 한 청소년이 스스로가 타인들과 다른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성소수자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쉬쉬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을 무성적으로 개조하려 하는 학교(학원)와 가정 외의 다른 공간도 다른 인간관계도 접하기 어려운 조건을 뛰어넘는 과정이 여러 겹의 고비와 함께 진행된다.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이 성소수자로 정체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되었지만,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을 사용하는 것조차 입시의 압박과 가정의 감시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찾아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의 혐오와 폭력에 병든 채로 컴퓨터 화면에 뜨는 다른 이들의 위로의 말 외에 붙잡을 것이 없는 이들도 많다. 수도권에 사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 지방에 사는 청소년들은 실제로 성소수자인 사람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다고도 증언한다. 연애도 온라인으로밖에, 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는 너무나 많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청소년 계층에게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되어 나타난다. 청소년에게는 자신을 함부로 하거나 폭력을 사회문화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억압 역시 성소수자인 청소년들에게 심화되어 나타나는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마치 비행이거나 부도덕한, 특히 청소년에게는 더욱 더 그런 요소처럼 받아들여져 감시와 교화, (폭력적)교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아웃팅(outing: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으로 인한 부모형제자매의 언어적, 행위적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없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사용기록을 꼼꼼하게 지우고 휴대폰과 일기장 보완을 철저히 하는 등 하루하루 긴장하며 자신의 인간관계와 경험들을 숨겨온 이들이다. 성정체성을 밝히거나 밝혀지고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슬프게도 매우 드물고, 청소년에게는 감시받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은 너무나 크다. 청소년의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부모의 집'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자기만의 방도 자기만의 사적 기록물도 자기만의 시간도 없다. 있다 하더라도 위태롭게 보완이 유지되며 그 안에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들이지 말지를 결정할 선택권은 없다.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틀에 박힌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각종 제제를 가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홀로 무엇이 옳다거나 무엇이 그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세뇌 받아온 그것들을 어느새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생존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부모들이지만, 가장 다수인 눈동자들은 학교와 학급 안의 다른 학생들이다. 누군가가 여/남성스럽지 않을 때나 동성에 대한 성적지향을 가진 것이 드러나거나 그렇게 오해되었을 때 학교 구조 전체와 똑같이 파시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실 안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소외와 폭력이 일어나며, 그 학교, 그 학급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고립되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지면 곧 교사가 이를 심문, 처벌, 배제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자연히 가정의 귀에도 들어가 청소년 당사자들은 폭력으로부터 도망치지도 못 하는 상황에 갇힌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될 즈음부터, 일부 보수 언론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간 동성애 및 청소년들의 임신을 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 조항 중 차별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여부가 들어가 있고 기타 성소수자 학생 보호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데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의 공포와 혐오를 이용한 셈이었다. '초등학생 엄마와 중학생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나'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항문성교 배웠어요' 등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구호는 청소년 인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가장 직접적이고 선정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문제이며, 청소년의 성억압이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청소년 억압의 중요한 기준치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의 성억압은 왜, 어떻게,

우리는 성년인 남녀가 혼인한 후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은 또다시 성년이 된 후에 이성과 혼인하여 가족을 꾸리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정의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청소년은 이성애적으로 무성(無性)적일 것을 강요받으며(연예인은 입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좋아하면 되지만 현실 삶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그/녀의 성애적 실천은 성년이 된 후(혼인 후)로 미뤄진다.(성인 이성애 기혼 남성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제도에 대해서 여성 혹은 성소수자의 입장에서의 비판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이 청소년의 인권과 성적 권리를 얼마나, 어떻게 억압하는 지에 관하여서는 담론과 운동 모두 부족한 것 같다)청소년이 이성애적으로 무성적이어야만 현재의 가족 체제는 유지가 가능하다.

사회는 청소년을 가정 안으로 복속시키고 돌봄 노동이 필요한 영유아 계층을 공공적으로 책임지는 대신 가족이라는 개별 단위들이 책임지게끔, 그래서 청소년과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도록 점점 구성되고 있다. 16세 이전에 혼인하던 시절로부터 '아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며 스무 살 이전의 사람들은 보호 및 교육되어야 할 존재들로 규정된 지도 이젠 오래 되었지만, 불과 이십여 년 전, 학생회가 운동 집단인 경우가 많았던 고등학교(그들의 운동이 청소년 인권운동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이었는가는 평가가 필요하다)와 현재의 고등학교는 차이가 크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점점 가정 안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을 가정 안으로 포섭한 것은 성인 여성 전업주부의 '집안일' 중 자녀 양육을 위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려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더욱 더 '집안일'에 매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입시 외의 다른 일을 청소년이 할 수 없도록 되면서 성인 남성 가장이 임금노동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기간이 늘어나 그들의 과잉노동이 줄어들지 않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청소년들은 이제 '교육' 시장에서 '부모의 돈'을 소비하여 교육을 받아야지만 미래의 자본을 기약하며 '성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의 학습노동은(체제 유지 및 재생산에 필수적인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로써 과도하게 강요되는 것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노동이 아닌 취급을 받는다.

한국의 민법은 청소년에 대한 친권 행사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는 친권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되었으며, 탈가정하였을 때 청소년은 기본적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친권 조항 중 '거소지정권'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정 외의 유일한 공간인 쉼터에서는 입소 시 친권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단적인 재산 행사권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은 집을 매매하거나 고시원 등 임시주거조차 얻지 못해 사실상 지낼 곳이 아무 데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노동과 관련하여선 만15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을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확인받아야지만 노동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주거와 생존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상황에 탈가정 청소년들은 종종 처하곤 한다.

결국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성애와 모성애에 전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임할 수밖에 없고, 사생활과 자기만의 방의 부재는 성소수자인 것이 드러나 가정폭력을 겪고도 탈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혹은 입시를 위해 연애를 그만두라는 부모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청소년을 가둔다.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기에(어렵기에) 성적 주체가 되는 것도 그만큼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우리의 과제, 청소년의 가족구성권,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여기서 가족구성권은 기존의 혼인,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넘어, 이성애중심적이고 정상가족(엄마, 아빠, 딸, 아들)중심의 가족 담론을 넘어,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증가하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가시화시키고 권리의 주체로 만드는 목적성을 가진 언어이다. 현재의 가족 체제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에 봉사하고 있고, 여성, 성소수자 등의 인권이 가정 안팎에서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성애적 정상 가족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지 등의 혜택에 대한 비판적 언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과 가족, 청소년의 가족구성권과 독립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구성권은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원한다면 독립하여도 생존과 인권이 보장되는 것까지 포괄한다고, 그리고 가족구성권의 보장 대상에는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성인 동성 커플의 파트너쉽 위주로 돌아가는 가족구성권의 담론에 아동, 청소년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고 비판할 필요성도 있지만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은 청소년이 겪는 가정에서의 억압을 해소하고 특히 성적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가족구성권을 이야기 해나가야 한다는 점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의 고민들, 과제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함께 만들어진 모임으로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들의 '청소년'이라는 계층에 주목하는 고민들이 아무래도 비교적 부족한 성소수자 운동과

여러 번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잘' 부대낄 방법을 찾고 있다. 공동행동 활동 이후로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의 부재를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지적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가'로서 존재를 드러내는 일을 반복해서 진행해 온 결과,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것 같아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얼마 전 '동성애자 인권연대' 와 함께 동성애자 인권연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성 교육 중 '청소년-언제부터 어른이지?' 파트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나가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 지는 고민에 남는다.

성소수자 운동에서의 청소년 성소수자 의제 강화 외에도, 청소년 운동에서의 청소년 성소수자,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어떻게 운동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 또한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운동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나 청소년의 성적 권리문제는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청소년의 사회권, 정치적 권리, 학교에서의 인권 등 다른 단체 및 활동과 연대하고 함께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이 어떻게 더 잘 다른 청소년 운동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하고 교류할 수 있을지 또한 과제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모임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아, 활동가 모집과 재생산이 필요한 점 또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의제와 운동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학생인권조례 활동, 성소수자 운동에 과제로 남기기> 토론회 자료집 중

쥬리 (서울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10대 팀)

1. 성소수자 운동은 '성소수자'로 정체화, 지칭된 사람들의 권리 운동이자 성적 차별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좀 더 인권적인 성적 체계의 형성을 위한 운동이라고, 나 스스로는 정의내렸다. 그 시작에는 성소수자 개인들의 얼굴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전반적인 성소수자 억압의 철폐를 고민함과 동시에 '어떤' 성소수자에 주목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2. 청소년은 확연히 주변의 구체적인 억압의 족쇄가 몸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계층이며, 가정과 친권의 행사, 현 한국의 학교 체제 및 사회 전반의 청소년 억압과 함께 청소년 개인들의 삶을 제한하는 장치들이 가동되고 있다. 한 청소년이 스스로가 타인들과 다른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성소수자 관련 정보가 차단되거나 쉬쉬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을 무성적으로 개조하려 하는 학교(학원)와 가정 외의 다른 공간도 다른 인간관계도 접하기 어려운 조건을 뛰어넘는 과정이 여러 겹의 고비와 함께 진행된다.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이 성소수자로 정체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되었지만,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을 사용하는 것조차 입시의 압박과 가정의 감시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찾아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의 혐오와 폭력에 병든 채로 컴퓨터 화면에 뜨는 다른 이들의 위로의 말 외에 붙잡을 것이 없는 이들도 많다. 수도권에 사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 지방에 사는 청소년들은 실제로 성소수자인 사람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다고도 증언한다. 연애도 온라인으로밖에, 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는 너무나 많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청소년 계층에게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되어 나타난다. 청소년에게는 자신을 함부로 하거나 폭력을 사회문화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등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에 가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입시교육을 강요받으며, 쉬는 날에도 가정을 벗어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인간관계는 부모와 교사에 의해 감시당하며, 청소년의 시간은 입시를 위한 것으로 짜여 있어,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은 특별히 무엇을 하는 지 관리해야 할 시간처럼 취급된다. 때문에 성정체성을 찾으려는 청소년의 시도는 입시에 방해되는 비행이거나 대학과 취직 이후 결혼의 수순을 헝클어뜨리는 불효이거나 이성애적으로 무성적이어야 할 청소년의 성윤리에 어긋나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가정에서 아웃팅으로 인한 부모형제자매의 언어적, 행위적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없는 청

소년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사용기록을 꼼꼼하게 지우고 휴대폰과 일기장 보완을 철저히 하는 등 하루하루 긴장하며 자신의 인간관계와 경험들을 숨겨온 이들이다. 성정체성을 밝히거나 밝혀지고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슬프게도 매우 드물고, 청소년에게는 감시받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은 너무나 크다. 청소년의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부모의 집'이다. 청소년은 자기만의 방도 자기만의 사적 기록물도 자기만의 시간도 없다. 있다 하더라도 위태롭게 보완이 유지되며 그 안에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들이지 말지를 결정할 선택권은 없다.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틀에 박힌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각종 제제를 가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홀로 무엇이 옳다거나 무엇이 그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세뇌받아온 그것들을 어느새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생존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부모들이지만, 가장 다수인 눈동자들은 학교와 학급 안의 다른 학생들이다. 누군가가 여/남성스럽지 않을 때나 동성에 대한 성적지향을 가진 것이 드러나거나 그렇게 오해되었을 때 학교 구조 전체와 똑같이 파시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실 안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소외와 폭력이 일어나며, 그 학교, 그 학급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고립되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지면 곧 교사가 이를 심문, 처벌, 배제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자연히 가정의 귀에도 들어가 청소년 당사자들은 폭력으로부터 도망치지도 못 하는 상황에 갇힌다.

3. 서울 주민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체의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안에 비해)한참 후퇴한 안으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문구를 삭제한 채로 초안 발표한 이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고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은 교육청에서 서울시 의회로 심의 권한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의 차별 사례를 정리하고 1인시위를 지속했으며, 의회 심의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채로 상황이 악화되자 서울시 의원회관 1층 로비를 점거, 6일간 농성하는 행동을 벌였다. 전반적인 인권운동의 진영들이 이 운동에 응원과 연대를 보냈고, 일부 철거민 운동과 노동 운동 진영에서도 지지를 표해 왔었다.

매우 많은 지지와 연대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운동이었지만,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고 주민발의 서명을 받는 등 오랫동안 청소년 인권을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과 서로 주목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이 차별 금지 사유에서 빠지면 조례를 폐기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가 후퇴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혔던 상황들이 있었고,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운동을 해나갔지만 막상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는 계속 고민에 남는다. 전반적인 청소년 인권의 보장과 그 속의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모두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고 주민발의를 추진했던, 성적지향이 빠지더라도 조례 통과를 기원하는 쪽을 택한 성소수자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소수자인 나는 차별금지 사유가 수정되면 조례를 폐기시키자는 주장을 하게 된 상황은, 학생인권조례 서울본부에서 조례안을 작성할 때부터 성소수자 공동행

동이 의회를 점거하기까지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성소수자가 아닌)청소년'과 '(청소년이 아닌)성소수자'의 운동이었을 뿐 거기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생인권'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었다는 회의감을 안겨주었다.

처음 공동행동이 결성될 당시 지금의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의 전신인 공동행동 안의 '청소년 성소수자 조례대응팀'이 있었다. 청소년 성소수자 발언대회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인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서 그곳의 역할은 차별 사례를 모으는데 동참하고 '당사자'로서 언론과 대중 앞에서 직접 겪은 차별 사례를 발언하는 것에 그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모였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 운동에서 이미 오랫동안 운동해온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례화되고, 이 운동의 의의가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보다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혹은 '청소년기부터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자'로 치중된 이유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이 비어 왔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이 사회가 좀 더 인권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결코 누군가를 침묵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4.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에서 신촌공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거리상담하는 '퀴어뱅'을 열고,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무지개학교놀토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근거지가 된 청소년 자긍심팀을 만들어 꾸려왔다.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도 이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덕분이다. 그러나 현 '퀴어뱅'과 '청소년 자긍심팀' 외에 운동적인 청소년 성소수자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담과 하위문화 창조, 커뮤니티 기능에 국한된 감이 있었던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들의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고 권리 보장을 위해 운동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의제로 운동하는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을 강화하는 데에 지금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정착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교과부에서는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악하는 등 조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지금 서울의 많은 학교 당국들은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교칙을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생인권조례 아무 소용 없다'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두발복장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켜내었던 노력들이 그저 그 문구만을 지켜내려 했던 것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려 했던 것이라면 이제 정착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운동 흐름과 함께 조례안에 보장되어 있는 '학생인권위원회'등에 개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및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대응책 마련 및 실제적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의 향상을 목표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당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현장성

이 살아 있는 운동을 형성해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장소
신촌공원은 의미가 큰 장소다. 십대 레즈비언들이 모여 '일일찻집' 등의 자체적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는 데에도 근거지가 필요하다. 근거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운동 기획을 세울 수 있는, 활동가 재생산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온라인의 공간, 언론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정에 저항하기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가장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다. 부모가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저항할 수 없고, 탈가정에는 너무 큰 제약과 위험이 따른다. 탈가정 청소년의 사회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가정폭력의 법적, 사회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사회권
청소년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으며 친화적인 관계망 안에서 살 수 있으려면 사회권의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탈가정하여 주거와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용돈을 받지 못 할까봐 친권자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 또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차별 없는 상태가 되려면 최소한 인간답게 살 만큼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권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고 운동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사람으로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너무나 숨어 있고, 의제로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이제 막 싹이 틀까 말까하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과 성소수자라는 이중 굴레, 심화된 청소년으로서 겪는 폭력과 성소수자로서 당하는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앞으로는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의제가 더 깊게 공감받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찾아오기를 기대해본다.

◆ 2부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

❶ 학력/학벌 차별을 넘어

호야 (탈대학네트워크 고등어)

[네트워크의 질문]

1) 대학을 안 간다고 하거나, 대학(학력/학벌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당사자인 청소년들 스스로 이 이야기를 오히려 불편하게,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또는 '대학에 못가는(등록금의 문제든, 성적의 문제든) 사람도 많은데, 니들은 뭐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보수 언론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학입시 거부, 학력 차별 반대 운동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학력차별에 반대하는 것, 대학만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내는 데 있어서 이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말 걸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대학을 거부하는 것, 가지 않는 것이 청소년들의 더 활발한 운동이 되려면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고등어에서 탈대학 공부방 활동도 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후의 삶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할까요?

먼저 홍보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케 탈대학네트워크 고등어를 불러주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장을 씁니다.

Q1.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면

대학을 안 간다고 하거나, 대학(학력/학벌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당사자인 청소년들 스스로 이 이야기를 오히려 불편하게,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또는 '대학에 못가는(등록금의 문제든, 성적의 문제든) 사람도 많은데, 니들은 뭐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보수 언론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학입시 거부, 학력 차별 반대 운동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학력차별에 반대하는 것, 대학만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내는 데 있어서 이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말 걸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래 전부터 대학거부/학벌철폐운동이 계속되어왔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피부에 와닿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아마도 김예슬 선언과 투명가방끈이 그 시작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느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등어의 역할이자 목표는 그 질문, '그래서 어떻게 뭐 하고 살 건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살아가고자, 그냥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팔딱이며 생동하고자 합니다. (아가미만 헐떡이고 있는 고등어보단 온몸으로 팔딱거리는 고등어가 더 매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해님과 바람'에서 보여주듯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강풍이 아닌 뜨거운 햇살입니다. 투명가방끈이 그러했듯 고등어 역시 대학거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명가방끈이 '새로운 선택이 존재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고등어는 그 선택 이후의 삶에 주목, 본격적으로 대학 없는 삶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한 단체랄까요. 단,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등어가 당사자인 청소년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재능나눔 교실'(현재는 기타 재능나눔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책 읽고 토론하는 '공부모임', 거주 공간이 있는 사람이 자기 공간을 남들에게 열어놓고 그 공간들로 네트워크를 꾸려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주거권 프로젝트 '오픈하우스'. 다양한 탈대학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고등어 기자단'까지. 아직은 버둥거릴 뿐이지만, 점점 더 다채롭게 변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2. 힘을 싣는 방법

대학을 거부하는 것, 가지 않는 것이 청소년들의 더 활발한 운동이 되려면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고등어에서 탈대학 공부방 활동도 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후의 삶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할까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장 절실한 것은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의 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 차별이 사라진다면 대학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업의 서열화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력을 위해 특정 직업에 몰리기보다 진정 자신이 원하는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한다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도적인 부분과 더불어 의식적인 변화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학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비(非)대학생이 목소리를 낼 자리는 썩 많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 것이 소수자에게는 정말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예로, 대학생 할인 제도나 각종 행사의 이름에 '대학생'을 넣어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이 경우 비대학생은 투명인간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감과 존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생에서 청년으로의 대상 확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부분의 개선 역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네트워크는 그 망의 촘촘함이 중요합니다. 고등어의 부족함을 함께 메워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하는 것은 고등어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담회 이후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누가 왔나 다 보고 있다구요.

마치며

아마 지금까지 풀어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지루하고, 다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또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탈대학네트워크, 고등어語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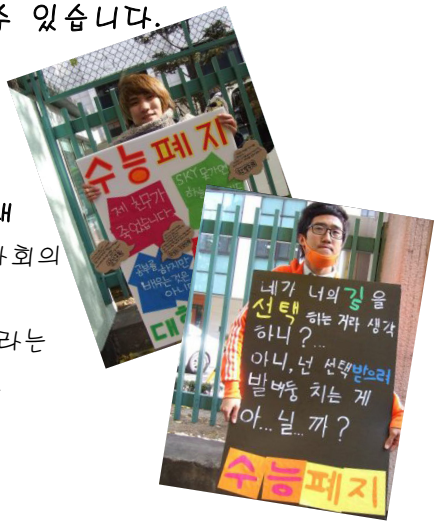
고등어란?

=고등어는 탈대학적인 삶을 나누는 커뮤니티입니다.

고등어에선 학력·학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삶의 방식, 철학, 가치관의 공유를 통해 탈대학적인 삶을 모색합니다.

=고등어는 초졸자, 중졸자, 홈스쿨러는 물론 대학생이더라도 학력과 학벌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학벌사회를 반대합니다.



=80%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이미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오로지 명문대 이름표를 달기 위해 12년 동안 '왜?' 라는 의문도 한 번 가질 새 없이 잔인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대학졸업장은 마치 계급처럼 평생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대졸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업종에서 조차 대졸자, 그것도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대학 서열순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현실. 그 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대졸이라는 학력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은 청년실업 문제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조차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탈대학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연대하여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공고한 학벌사회의 벽은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힘을 북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어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고등어의 활동

=현재 고등어에선 **<기타 재능 나눔교실>**과 탈대학적인 삶을 모색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탈대학공부방>**, 탈대학적 삶을 취재하는 **<고등어 기자단>**, 공간나눔 프로젝

트 〈**오픈하우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친구만들기, 소풍·MT, 고민나눔센터,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기획강좌, 문화콘서트, 벼룩시장 등 머릿속에 있었지만 함께할 친구가 없어 하지 못했던 재미난 상상들을 고등어를 통해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cafe.daum.net/gojolmanse

◆ 2부 청소년운동, 물음표를 나누다 ◆

❶ 청소년의 활동기반 마련을 고민한다

둠코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 활기)

[네트워크의 질문]

1) 활기는 2010년에 꾸려졌고, 올해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활동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모임을 꾸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 활동기반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느낌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활동 지원금을 준다는 건가? 여기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건가? 등등 의문 투성이~ 앞으로 활기는 청소년 활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인지요? 다른 청소년 모임/단체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 활기의 자기소개

<시작>

활기는 청소년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택한 청소년 활동가들이 좀 더 편하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자고 꾸려졌는데 제 몸 하나를 추스르지 못하고 참 여러 번 다시 '시작'한 모임입니다. 청소년활동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에 모였는데, 정작 뭘 어째야 할지도 모르고, 다들 바라보는 모양새가 달랐던지 몇 번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카오스>

청소년활동의 기반은 뭘까? 공간? 돈? 교육??? 참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는 상이 달라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활동은 뭐지? 라던가 나는 활동가인가? 라는 질문도 나오고... 결국 그런 질문들은 끝을 보지도 못했고, 아직도 활기의 상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도 해 보자고 벌려놓은 사업마저 지지부진해지고.... 한 때는 활기 구성원들이 '활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침울해지는, 안구에 습기차는 시기도 있었답니다. 이게 활기의 '카오스'시기입니다. 이제 슬슬 털고 일어나서 재정비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돈>

사실 우리가 목표가 확실하고, 의견이 일치하면 활동기반을 척척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은 어디 돈 나올 구멍 없을까.. 하는 겁니

다. 2010년 말에 '핫유스(hot youth)'라는 후원행사로 급한 대로 운영비 정도를 마련하고, 저공비행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하는데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는 등 어떻게 어떻게 간당간당 돈줄이 끊기지는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평생 목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역시 응원해 주세요.

● 활기

청소년운동을 하는 청소년 비청소년 할 것 없이 예전부터 계속 끌어안고 있는 고민은, 역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알바를 하느라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고,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활동을 하는데 결국 비정규직 인생과 돈에 얽매여 버렸네... 하는 상황과 몇 번이나 조우하고, 좀 더 버티며 활동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오늘의 교통비도 없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리고 가끔은 지금도 회의를 잡기 위해 다른 단체 사무실을 전전하는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청소년활동이 뭐 하는 건지, 있기는 한 건지 운동사회 내에서도 그렇게 잘 몰랐구요.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혼자서만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생활을 책임지는 건 할 수 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 활동을 포기하는 슬픈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닐까?"하는 이야기나, "청소년 활동, 너무 열악해! 공간+인프라도 필요하고, 청소년 활동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필요해!" 하는 이야기로, 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비주류적 삶을 선택한 청소년활동가들이 활동에 치여 배우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모일 장소나 자원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활기는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단체의 활동이나 활동가 개개인을 물질적으로나,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는 모임입니다.

활기가 만들어졌을 때 고민하던 것 중 하나는 그 추상적인 '활동기반'이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끼던 어려움들을 나누고 고민한 결과, 저공비행이라는 활동가 교육지원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강좌 형태의 인문학 수업으로, 2011년에는 개별 세미나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요. 하지만 끝까지 잘 챙기지 못해서 흐지부지 소멸상태에 이른 것이 반성, 또 반성할 부분입니다(흑흑). 참여하는 활동가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소액의 돈을 지원했지만 이 역시 지금 활기의 재정으로는 힘들다는 결론에 다다랐구요. 덧붙여서 '누구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붙잡고 찐하게 이야기 해 봐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2012년에 재정비를 꾀하고 꿈틀거리는 활기는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쓰던 공간의 운영을 맡는 것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여기저기 빚도 많던 이 공간을 활기에서 운영해 갈 수 있게 된 큰 도움은 2011년 청소년활동가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서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제 1회 이돈명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상금을 그야말로 피땀으로 서명을 모은 청소년들의 기반조성을 위해 활기에 투척받았습니다!! 그래서 활기에서 이 공간의 비용을 많은 부분 부담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같이 쓰던 단체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 없는 교육사업입니다. 활기에서는 정해진 사람들이 쫀쫀하게 모이는 형태의 강좌는 활기의 역량에 아직 참 어렵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알게 모르게 공력을 높일 수 있는 월례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도 네트워크의 해소와 발맞춘 월례워크숍의 스타트@_@(우와!)입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활동이나, 현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활동에 유익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디자인, 기타, 노래, 춤(몸짓!), 실용 글쓰기, 외국어 등등의 실용강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활기는 참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만, 활기가 좀 더 든든한 존재가 되어서 활동기반이 열악한 청소년단체나 활동가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체 역량으로 준비하기 힘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 활기의 소식지를 통해 청소년 활동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리는 일, 청소년활동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활동하면서도 먹고 살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 등등.. 좀 더 바랄 수 있다면 탈가정을 택한 청소년 활동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내다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활기가 모임 내부를 챙기느라 바빠서 도대체 뭘 하는지 잘 알리지도 못한 탓에, 이 분담금 먹는 괴물(;;;)이 뭐 하는 덴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던 모든 분들에게 좀더 든든한 곳이 될 때 까지 계속 지켜봐 달라는 파렴치한 부탁과 함께... 우리 다시 부활했습니다!!

[참고자료]

청소년 활동가들의 운동 안팎을 향한 투쟁

- 청소년 활동가로 살아가기, 살아남기

기록과 정리 한낱 |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사회 배경내 |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날짜와 장소 2011년 12월 17일, 인권재단 사람

: 격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2년 1-2월호에 실린 청소년활동가 좌담기록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분량 상 전문을 싣지는 못했습니다.
http://esaram.org/2008/webbs/view.php?board=esaram_8&id=280&page=1

2011년 12월 16일, 주민발의를 통해 제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가 미뤄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 시기상조를 운운하며 조례 통과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추운 겨울부터 한 여름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1) 한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날, 좌담을 위해 다섯 명의 청소년 활동가들을 만났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총 6개 권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이에 힘입어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유사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번져 나갔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 청소년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의 의제로 꾸준히 학생인권을 주장해왔던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학생인권이라는 의제는 각별하다. 두발자유, 체벌금지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학생인권운동은 말 그대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당연한 명제를 학교 안에 등교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렇다고 청소년 활동가의 인권활동이 모두 학생인권으로만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를 지나 꾸준히 성장한 청소년 인권운동은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혹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고민하는 데까지 그 의제가 확장되었고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모임들 역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촛불 정국 이후 청소년 인권으로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투쟁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했다. 특히 홍대 두리반, 명동 마리와 같은 철거 투쟁 현장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의 얼굴을 쉽사리 마주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른들'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 '어린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무얼 먹고 사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살기 위하여 활동하지만 일단은 살아남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 모셨다.

[참석자]

공기 1993년생. 17세에 탈학교. 2008년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인권활동을 만남. 두리반, 마리 등 재개발 반대 농성 투쟁에 함께함. 사회당 청소년 위원회 준비모임,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참여.

따이루 1993년생. 16세, 18세 두 번의 탈학교. 학생들에게 시비 거는 강남 출신 영어교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온라인 카페 발견, 활동 시작. 2007년, 인권활동을 반대하는 집과의 투쟁으로 가출/독립 감행하여 3년간 지속. 청소년 알바 노동의 실태를 알리는

활동도 함.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참여.
아리데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08년, ‘입진보’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소개로 청소년 인권운동 알게 됨. 이곳저곳 찾아보다 아수나로 알게 됨. 아수나로 인천지부에서 주로 활동하며, 인천 인권영화제 자원 활동도 함.

한민성 1993년생. 15세에 탈학교 후 고등학교 다시 진학. 운동의 시작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모호함. 사회에 불만 많은 불온세력. 2007년, 제도권 밖 교육을 고민하는 민들레 사랑방(現 공간 민들레)을 잠시 다니기도. 명동 마리 투쟁을 하며 청소년 활동가들을 만남.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

혜원 1993년생. 18세에 탈학교. 아수나로 남양주 지부 활동가. 2009년 일제고사 반대 투쟁 때 전교조 간부인 엄마 손잡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아수나로 활동가들 만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가운고 무더기 강제자퇴 사건해결 대책위원회 등 참여. 경기학생인권조례 정착화 사업에도 열중. 2012년 대학 입학 예정.

[본격 좌담은 온라인이나 잡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